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천사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느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새긴 그 깡패를 하느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비록 착하게 살고자 결심하면서 자기 몸에 문신까지 새겨 넣었지만, 그 문신이 그를 착하게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외곽도로에 세워진 ‘바르게 살자’라는 표어 역시 저를 씩씩하게 합니다. 돌에 새겨진 그 표어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니 말입니다. 마치 그 말이 깡패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결국 그런 문신이나 표어는 깡패 본인에게나 이 사회에 진실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걸 하며 살 거야 하며 때로 자신들의 결심을 친구 앞에서나,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론 고백성사를 보면서 하느님께 약속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잘할게요. 착하게 살게요’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들은 잘 지켜집니까?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분명 하느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하느님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자의 하느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고(루가 20, 38) 말합니다. 분명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앞에 살아 있는 자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결심하는 것들을 하느님의 자녀답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듯이 나도 친구와 동생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듯 어려운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 약속을 잘 실천해 나갈 때 하느님은 그 모습을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아멘.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11월 18일) ‘그 날이 오면’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찬미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을 열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열어 하느님께 보이니,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가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의 이름이고, 그가 하느님께 봉헌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그 성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면’ (말라 3, 19)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살아왔는지 물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언제일까요? 저는 전쟁과 반란, 기근과 전염병, 지진 등의 무서운 징조가 나타날 때만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질투와 미움, 분노와 슬픔, 가족간의 갈등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과 징조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매일 매일 싸워나가는 지금, 때로 병들고 지쳐 있을 때, 때로 친구나 부모님과 싸워 마음이 갈라져 아파할 때, 나는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루가 21, 13)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자학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치장된 성전을 하느님 앞에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치하는 자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느님 앞에 나서게 될 우리는 다른 차원의 자리에 서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성전’ (1고린 3, 16)이기에 하느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하느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덩이를 들고, 금은보석으로 치장한 자신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1고린 3, 11) 위에 쌓아올린 성전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과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내는 그런 성전일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아름답고 화려하다면 하느님은 그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르 11, 17)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에 기도, 믿음, 선행, 희생, 사랑, 친절, 온유함 등을 쌓아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날이 오면’ 하느님의 성령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 성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으로써 불렀던 하느님의 이름과,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 주었던 친구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따스하게 감싸안아 주었던 친구의 아픔이 자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했고,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함께했던 이들을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펼쳐 보이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친구들을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름 불러 봅시다. ‘친구야, 사랑해!’ 아멘.

그리스도 왕 대축일(11월 25일)

나의 왕은 누구?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신앙의 삶을 주관하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은 오늘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쳐집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로마 병사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또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죄수조차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당하며, 초라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찾고 있는 그분, 내가 부르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 그만 길을 잘못 들었다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지면서 필사적으로 무엇인가 잡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 때문에 다행히 낭떠러지 중간에서 자라던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나 제발 대답 좀 해 주세요.” 하며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구해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여행자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는 매주일마다 성당에 나갈 뿐만 아니라 헌금도 열심히 내고,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는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 말을 듣고 여행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